

닫혀 있는 종교, 문학

〈한국 현대문학의 제도적 권력과 사회〉 정현기 지음 | 문이당 | 304쪽 | 값 13,000원

“미당은 하나의 정부다.”

특유의 과장어법이 섞여 있긴 하지만 고은이 미당 서정주를 두고 했다는 이 말은 문학권력의 실체와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은유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 물론 서정주 문학이 성취한 예술적 성과에 대한 일종의 경의로서 행해진 언급이라는 사실을 십분 헤아린다고 해도 서정주가 생전에 보여준 문단에서의 영향력과 그가 누렸던 문학적 영화, 그리고 그에게 바쳐졌던 문단 안팎의 최상급의 현사들을 돌아보면 고은의 말에서 문학권력으로서의 미당의 은밀한 자취를 발견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학평론가 정현기 역시 그의 저서 《한국 현대문학의 제도적 권력과 사회》(문이당)에서 ‘모든 작가와 시인은 하나씩의 정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정부’란, ‘근본적으로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이며 ‘모든 문인들은 가장 강력한 정부를 자신의 문학 행위 속에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고은과 정현기의 말을 사실로서 모두 수용한다면 문학권력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작동되는 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학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문학권력을 둘러싼 논쟁의 당사자 중 한쪽이 문학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로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권력》은 간단히 얘기하면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전혀 간단하지 않다. 그동안 고의적으로 왜곡되었거나 은폐되어 있던 한국문단의 침묵하면서도 민감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까발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 덕성여대 권성우 교수 두 사람의 공동저작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책에 실린 글 중 권 교수가 쓴 글은 문학평론가 남진우의 글에 대한 반론 성격을 띠고 있는 〈심미적 비평의 파탄〉이라는 평문 하나뿐이고 나머지 원고는 모두 강준만 교수가 집필한 글이다. 강준만 교수는 〈인물과 사상〉 발행인으로, 사회 각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고 비판의 필봉을 휘두르고 있는 매우 열정적인 논객이다. 그의 작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강 교수가 취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염려일 뿐, 그가 벌이는 작업의 당위성에 대한 도덕적 간섭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필 문학권력을 문제 삼고자 했을까? 책의 머리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한국 문단이 기존의 ‘닫힌 종교’에서 ‘열린 종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깨끗한 포교활동에 나서라는 말이다. …지금 한국 문단이라고 하는 ‘닫힌 종교’는 속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저 자기 패거리 키우기에만 바쁘다. 내가 문학을 아무리 몰라도 나에겐 지금 내가 이 책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수준의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은 문학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문단이 상식수준의 과오를 범할 때엔 그 누구건 상식의 힘으로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문단 ‘바깥’에서 ‘상식’의 눈으로 문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 또한 논객으로서 솔직한 태도로 보여진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미덕은 적지 않다. 첫 번째 미덕은 우선 문단 안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온 금기들을 깨뜨리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머리말에서 금기를 깨는 작업의 성격에 대해 독자들이 유추해 볼 수 있

문을 열어야 한다

는 의미 있는 언급을 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건 도전을 하건, 우리 사회에선 그것들이 주로 은밀하게 ‘밀실’에서 이뤄진다. 잘못된 권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밀실’ 수준의 음모극을 싫어한다. 그들은 탁 트인 운동장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권력에 도전한다.”

그는 금기를 깨는 것을 곧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는 먼저 ‘문학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두 M신, 즉 Money와 Massmedia를 들고 있다. 특히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문학의 비루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문학이 그러한 조류에 편승해서나마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다. 아무리 부정적인 현상이 난무할망정 문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이 문단의 파행구조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주례사 비평’ 등의 문제를 통해 출판자본의 선전부대로 전략한 비평의 현실을 개탄한다. 그는 문학비평이 안고 있는 문제로 비평의 이념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업주의에 맹종하고 있으며, 편파적이며 정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자기 진단을 소개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며 가장 큰 문제는 비평이 출판자본과 패거리주의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

그는 이어 ‘제도적 사기 혹은 ‘권위훔치기의 합법화’ 라는 글을 통해서 각종 문학상 제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비판한다. 그는 문학상이 출판사들의 상품 홍보전략 차원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자본이 결탁해 문학 작품을 저열한 상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만은 ‘문언유착’ 현상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인다. 그는 ‘문언유착’이란 ‘문학과 언론이 상호 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공동의 이윤추구 및 세력확대를 위해 유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특정 신문과 문인들의 유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정체성에 관한 대답을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침묵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작과비평사를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언론개혁 논쟁을 ‘위선의 게임’으로 바라보는 정도의 극우적 면모를 보이는 문학과지성사에 대해서는 권력적 욕망과 패권의식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자본과 시장의 논리와 추잡하게 얽혀 있는 문단의 스타 시스템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한국 최고의 출판사 민음사와 이문열과의 밀월관계가 지닌 의미를 추적한다. 또한 문학전문 출판사 문학동네의 고속 성장은 다양성을 빙자한 잡식성 물량

공세와 주례비평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권성우는 자신이 쓴 <심미적 비평의 파탄>이라는 글을 통해 소모적 시비를 일삼으며 문학권력 논쟁 자체에 이전 투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남진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애초의 논점으로 돌아가 논리적으로 반박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문학권력 비판자들에 대한 비판은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시나브로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국문단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하지만 상처는 응시를 해야 치유가 된다. 인정하지 않는 질병은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도 난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문단의 왜곡된 현실에 대한 하나의 유효한 진단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터 벤야민은 ‘모든 획기적인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요컨대, 왼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른손의 관행과 모사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왼손이다. 그것은 오른손이 갖는 권위와의 항거로서의 왼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묘사와 창조로서의 왼손이다. 기자는 이 책이 획기적인 결정타는 못 되어도 그 결정타를 언제든 겨냥하는 가능성의 왼손으로서 읽혀질길 희망한다. **김도언 기자**

(문학권력) | 강준만·권성우 지음 | 개마고원 | 316쪽 | 값 10,000원

